

“ 사이버 세계에도 시장윤리, 공존윤리, 책임윤리가 있어야 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사이버 기술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 즉 가상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실제세계의 보완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 실제세계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이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의미를 형성하고 기여하고 죽어가는 역사의 장이다.

인간이 이 구체적인 삶의 시·공을 무시하고 사이버공간에 침잠하게 될 때 역사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의 신체는 먹고 마시고 쉬고 갈 수가 없고 실제 우리의 영혼은 불안과 무의미의 정조(情調)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성찰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이고 가상적 세계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접속의 시대에 사는 인간에게 시간 개념은 중시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와 문화의 원천인 지역적 공간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시장윤리, 공존윤리, 책임윤리는 실제세계에 사 는 시민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이라는 익명의 인간들도, 모두가 가져야 할 윤리다. 사 이버공간의 교제란 실제 인간이 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가면무도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자기 얼굴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춤추고 교제하는 주체는 여전히 실제 인간이다. 실제 자아는 가 면 배후에 숨어있다. 가면무도회에서는 진정한 인격적 소통은 있을 수 없다. 가면 자아는 연출을 하나, 연출가는 실제 자아다. 여기서 가면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에 균열이 있다. 가면 자아는 도 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것이 익명성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자아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자아는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윤리적 주체에게 그리스도는 여전히 문화의 창조자며 변혁자로서 다가온다. 사 이버공간에서도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질 때 책임윤리를 가지고 사이버공간의 문 화를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상세계를 창조세계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 나타난 세계는 무한한 세계가 아 니라 인간 상상력의 한계 안에 머무는 세계일 뿐이다. 이 가상적 세계를 물신적 존재로 변형시켜 서는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에 탐닉되고 있다. 구체적인 세계와 단절되어 가상세계 속에서 찰나적인 영상의 놀이에 몰입되어 자아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상세계가 아무리 정교하게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 적 사건이지 실제의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실제 상황을 예측하는 모형으로서만 존 재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사이버 인물도 인간이 그려낸 이상적 존재일 뿐이다. 그는 실제의 인간 이 아니다. 가상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미와 덕을 지녔다 해도 갈등 속에 있는 실재하는 나보다 우 월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사이버 인물은 인간이 지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최근 일베(일간베스트의 준말) 현상으로 사회 여론이 흔들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은 구체적인 신체성을 지닌 인간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영적 존재다. 그러므로 사이버 사회 속에 침잠해서는 살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익명으로 사실을 왜곡, 폄하, 비난하고, 파괴하는 인터넷 사이트 현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마야(maya) 즉 환상 내지 가상으로 보고 해석하며, 인간존재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공간에 있 는 책임윤리에 정면 도전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현실 세계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455호] 2015년 4월 18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Mr. Kyung Won Jang	
Scripture Reading	Micah 1:1-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Witness Against His People" Rev. Euichang Kim
* Hymn	65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가리호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경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아사, 비스토판,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란소, 수레시, 수바식, 알로로, 비시누(뽀, 보디소프, 린통, 수린존(방글라데시) / 감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경일(군선교) // 정성찬(홍성임(말라위),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제30권 제6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2월9일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요구 사항 ”

■ 미 6:8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섬김
 예배자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미가의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기독교나 여타의 종교를 믿는 이들이나 그들의 공통점은 “내가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 1만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함은 대단한 헌신이었을 겁니다. 번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므로 최상, 최고의 존귀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번제가 최선이라면 이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2.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
 성경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 일들을 해야 된다는지 또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면서 통 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첫 태생을 바친다거나 자식까지 바쳐야 하는 등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친히 알려주시며, 유대인들에게 이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으나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자가 구해야 할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 외적인 방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재물보다도 우리들을 기쁘게 만나주시는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인간 모두 흠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헌신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는 흠으로 지어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3. 하나님 공의의 의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책망을 받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행 16:32)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약 1:22)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의로운 법에 의한 삶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맺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두움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감옥을 입을 자들으로써, 모든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므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타인을 해치며, 해롭게 하고, 악한 말로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행동들은 빛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로 증명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섬기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 국가 간의 전쟁 등은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화목은 나 자신을 희생하고 술선수범하여 행동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희생과 술선수범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지켜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1:23-24... 인 도 자
-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5(시 8)...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19(44)...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시 27:4-6...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참된 성도의 갈망함”...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438(495)...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46:1-3 인 도 자
- 찬 송 43(57) 다 함 께
- 기 도 이집손 집사
- 성 경 창 14:17-24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멜기세덱” 설 교 자
- * 찬 송 214(349)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 기 도 박종숙 권사
- 성 경 창 22:1-14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기독교의 본질”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 임

1. 모세 선교회 월례회 / 9일(주) 오후 1시 30분 104호
2. 한나 전도회 월례회 / 9일(주) 오후 3시 15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3. 마리아 전도회 월례회 / 12일(수) 오전 11시 최경숙 집사 자택(개별통지)
4. 스테반 월례회 및 책사대회 / 15일(토) 오후 4시 1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2월 세례식이 2월 16일(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써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2월 9일(주) 오후 1시20분까지 1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1시30분부터 문답 총 경리가 있으며 바로 리허설 후에 2시부터 바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010-7743-32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단검사)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15.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서창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6. 서울교회 교회학교 남은 부서의 2020년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는 현 공중보건 비상상황이 안정된 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745명	217명	163명	1,125명	12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2일	헌 금	39,680,000	
	특별예배비		118,340
	찬양운영비		7,040,000
	교회학교운영비		1,535,000
	경 조 비		52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93,600
	통 신 비		116,780
	수도광열비		787,890
	차량유지비		814,390
	소모품비		168,160
	환경유지비		789,400
	수선유지비		56,000
	식당운영비		973,090
	합 계	39,680,000	13,262,65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병창	
찬양예배	베를레렘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